



Larceny Barrel Proof

라세니 배럴 프루프

훔쳐 마실 수 밖에 없었던 뛰어난 맛,
라세니



Point

- 2020년 선정 '올해의 위스키'
- 매년 한정수량만 출시되는 희소성 높은 버번 위스키
- 6년 이상 숙성 후 여과/희석 없이 그대로 병입한 배럴 프루프 위스키

Type

위스키

Country / Brand

미국 / 라세니

Capacity

750ml

Packaging

병

Alcohol

60.5%

Information

마치 1870년대의 피츠제럴드가 배럴에 있는 상태의 위스키를 몰래 맛보았을 때처럼, 위트 버번을 가장 순수한 형태로 즐길 수 있는 uncut & straight 타입으로 만든 버전이다. 6~8년간 배럴숙성을 거친 뒤 냉각여과 없이 배럴 프루프 상태로 병입한다. 연 3회 출시 하며, 알코올 볼륨은 배치마다 달라진다.

어두운 세피아 색을 갖고 있으며, 메이플, 시나몬을 뿌려 구운 빵처럼 달콤하고 따듯한 아로마가 느껴진다. 무화과처럼 달콤한 맛과 은은한 헤이즐넛 향을 즐길 수 있다.

라세니의 기본 위스키와 마찬가지로 옥수수를 주 곡물로 해,라이 (rye) 대신 밀을 사용했으며 그 함유량이 맥아보리보다 높아 비슷한 급의 버번 위스키에 비해 월등하게 부드럽고 섬세한 맛을 가졌다. 위스키 전문지 가 선정하는 2020년 올해의 위스키로 뽑혔으며, 이는 밀 함유 위스키로는 최초로 기록된다.

Tip

| 알코올 도수가 높은 배럴 프루프 위스키 본연의 맛과 향을 충분히 즐기고 싶다면 위스키와 물을 1:2 정도 비율로 섞어 천천히 맛보는 것이 좋다.